

어등산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2030년 문 연다

신세계프라퍼티-광주도시공사 협약
2033년까지 3단계 1조3천여억 투자
휴양·문화·운동·오락시설 우선 완료
미래형 복합 라이프스타일 센터 조성



어등산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조감도.
신세계프라퍼티 제공

신세계프라퍼티가 어등산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조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25일 신세계프라퍼티에 따르면 지난 22일 광주도시공사와 ‘어등산관광단지 부지 개발 공동 추진’ 사업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일정 및 협약이행보증금 등이 담겼다. 광주도시공사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 분양을 약속하고, 신세계프라퍼티는 유원지 부지를 호남권의 대표 관광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조성에 나선다.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는 신세계프라

퍼티가 광주 어등산 부지 41만7531㎡(약 12만6000평)에 추진하는 관광단지 유원지 조성 사업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 개발·운영 노하우와 역량을 집약해 ‘2박3일 스테이케이션’이 가능한 체류형 복합공간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시설 및 콘텐츠로 색다른 경험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휴양·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한다는 포부다.
신세계프라퍼티는 협약에 따라 2030년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1차 오픈, 2033년 최종 오픈을 목표로 공사 계획을 3단계로 구조화해 순차 추진한다. 특히 공공성이 높은 휴양·문화·운동·오락시설을 우선적으로 스타필드와 함께 완료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계획이다.
먼저, 2025년 하반기에 부지 관리를 비롯한 사전 준비를 진행, 2027년 1·2단계 시설에 대한 착공을 개시한다.
기반시설을 비롯해 관광휴양오락시설 지구 내 야생화 정원 ‘보타닉가든’, 어린이 특화 도서관인 ‘별꿈도서관’, 첨단 기술을 접목한 농장 ‘스마트팜’ 등을 1단계로, ‘스타필드’와 ‘콘도’, 자동차 체험 및 교통안전 교육 공간 ‘드라이빙스쿨’ 등은 2단계로 계획했다. 또한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상의 3단계에 계획된 ‘골프레인

지’, ‘글래스오디오킴’ 등을 2단계에 반영해 2030년에 기존의 1·2단계 시설과 함께 완료할 예정이다.
3단계 시설은 수역시설인 ‘레지던스’와 부대시설을 중심으로 개발해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총 투자비는 2033년까지 1조3403억원으로, 신세계프라퍼티는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총사업비 중 토지·상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인 635억원을 단계별 착공 전 광주도시공사에 납부한다.
토지매매가격은 광주도시공사가 감정평가에서 제시한 856억원을 웃도는 860억원으로 최종 산정했다. 협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토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를 납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세계프라퍼티는 원활한 사업 진행과 안정적인 지역 세수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협약 후 90일 이내에 스타필드 광주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동반성장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특히, 어린이 특화 도서관과 콘텐츠를 선보일 ‘별꿈도서관’을 기부채납해 지역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지역 내 주요 상권 및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판로 지원 및 상권 환경 개선 등 지속가능한 상생방안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예정이다.
신세계프라퍼티 임영록 사장은 “2030년 광주에 선보일 복합 라이프스타일 센터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추진에 탄력을 얻은 만큼 착실하게 준비해 광주 시민의 오랜 염원과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며 “연간 30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현대차 ‘엑스터·아이오닉5’, 인도 ‘올해의 차’ 선정

현대차는 인도 전략형 모델 엑스터가 인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2024 인도 올해의 차’ (Indian Car of the Year 2024)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인도 올해의 차는 인도에서 현지 소비자들의 신차 구매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8명의 자동차 전문 기자들로 구성된 인도 올해의 차 평가단은 매년 출시된 신차를 대상으로 가격, 연비, 디자인, 기술적 혁신, 안전, 주행성능, 실용성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 차량을 선정한다.
올해는 현대차 엑스터가 마루티 जिनि, 혼다 엘레베이트를 제치며 인도 올해의 차를 차지했다.
또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가 그린카 (Green Car) 부문에서 BMW i7, MG 코멧을 꺾으며 그린카 부문 1위에 올랐다. 총 3개의 수상 부문 중 2관왕을 달성

했다.
현대차는 2008년 i10을 시작으로 2014년 그랜드 i10, 2015년 엘리트 i20, 2016년 크레타, 2018년 베르나, 2020년 베뉴, 2021년 i20, 올해 수상까지 인도 올해의 차에 총 8회 선정되며 인도 자동차 시장 브랜드 중 가장 많은 수상을 차지하는 영예도 안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현대차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올해 인도 시장에서 1월부터 11월까지 55만9000대 이상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출시한 엑스터는 11월까지 3만9000대 이상 판매되며 현지 고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박지혜 기자

인공지능·문화예술산업 융합 활성화 나선다

AI사업단-ACC재단 업무 협약
콘텐츠 개발·교육·체험 등 협력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져왔던 문화·예술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입혀 새로운 형식의 혁신적인 문화예술 콘텐츠가 탄생할 전망이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하 AI사업단)은 지난 2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대회의실에서 김준하 AI사업단장과 김선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사업단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간의 ‘인공지능산업 발전과 문화예술산업 융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문화 예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켜 문화 예술 콘텐츠 활성화와 AI 융합 문화 예술 교육·체험 확대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산업 기술 확산을 위한 문화 예술 상품 및 콘텐츠 협력 △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사진 왼쪽)이 지난 21일 김선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과 ‘인공지능산업 발전과 문화예술산업 융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제공
신규 사업 기획과 과제 발굴 연계 협력 △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교육 지원 △ 교류사업 공동 추진 및 지원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보유한

인공지능 기술과 문화 예술 콘텐츠 및 인프라를 결합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다채로운 문화예술 교육과 체험을 제공, 미래세대 교육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을 운영하며,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소재로 다양한 놀이와 체험·예술작 창작활동을 통해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어린이 문화발전소 역할을 하고 있다.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문화 예술 분야는 역사적으로 다른 분야와 융합해왔고, 이제는 인공지능과 융합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면서 “인공지능 융합 문화예술 콘텐츠와 창작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문화 예술 융합 AI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전남일보 페이스북 facebook.com/jnilbo

금감원 Q&A

문 사례 1> 조00은 은행에서 2023년 2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CB(개인신용평가회사)사에서 산정한 신용평점이 835점에서 808점으로 하락했다. 신용대출이 아닌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고, 대출 원리금 및 카드값 등을 연체한 바 없음에도 평점이 하락한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사례 2> 황00은 2019년 12월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을 상환하고 ○○○은행으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로 갈아탔음에도 CB사 신용평점이 소폭 상승해 추가 대출을 받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해 재평가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사례 3> 강00은 카드대출을 받거나 연체 발생 등이 없음에도 CB사에서 신용평점을 임의로 하락시켜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시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사례 4> 양00은 최근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신용정보 조회 외에는 연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신용평점이 하락했다. 금융위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 조회만으로 신용평점이 하락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와 달리 하락한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사례 5> 강00은 ○○○CB사에서 산정한 신용평점은 상위 15%에 해당하고, ○○○CB사에서 받은 평점은 상위 8%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동일한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로 평가한 신용평점이 CB사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사례 6> 최00은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5영업일 이상 연체인 경우 연체 정보가 금융권에 제공된다고 알고 있는데, 2022년 11월26일 연체발생 후 2022년 12월27일에 이르러 연체금액이 10만

개인신용평가관리 유의사항

원이 됐고, 12월28일 바로 상환해 10만원 이상 연체한 기간이 2영업일에 불과함에도 CB사에서 동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한 것은 부당하므로 삭제 요청했다.
사례 7> 김00은 분할상환금 납부일인 2023년 3월30일까지 원리금을 미납해 5영업일 경과 전인 4월6일에 신복위로 신속채무조정(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로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접수)했음에도 ○○○은행이 4월7일에 단기연체로 등록해 동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된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위 사례는 신용평점 및 신용정보 관리 등과 관련해 자주 제기되는 민원들이다. 금리 상승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는데 보다 더 큰 관심을 갖게 되면서, 대출심사시 중요 평가요소인 개인 신용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에서 안내하는 개인신용평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답 첫째,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을 수록 일시적으로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 신용대출 뿐 아니라 담보대출(신용대출에 비해 신용평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적은 편)을 받더라도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나 연체없이 꾸준한 신용거래 유지시 평점은 상승할 수 있다.
둘째, 최근 고금리 대출 등을 이용한 이력은 정상상환 후에도 신용평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축은행, 대부업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경험은 대출 상환 이후에도 일정기간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쳐 즉시 신용평점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셋째, 대출연체 등이 발생하지 않아도 꾸준한 신용거래 또는 체크카드의 지속적 이용실적이 없으면 신용거래정보의 부족군으로 분류돼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 한편, 단순한 신용정보 조회는 신용평가에 활용되지 않는다.

넷째, CB사별로 활용하는 신용정보 범위 및 반영비중 등이 상이해 동일한 대출을 받더라도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다를 수 있다.
다섯째,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이 된 후에는 5영업일 이내 상환했다라도 해당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연체관리를 해야한다. 최근 5년간 연체이력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 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소비자의 경우 30일 이상, 30만원 이상 연체 시 금융권에 공유하고 신용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채무조정 지원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출 상환의 정상 이행 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해당 제도 활용시 신용회복에 유리할 수 있고,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금감원 광주전남지원·1332